

학익동·용현동 일대의 변화 기록전

도시가 품은 시간들

주거로,

바다 위에 세워진 공장은 도시의 심장이 되었고,
그 위에 세워진 집들은 사람들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풍경은 바뀌었지만,
그 시간의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25.11.11 - 11.18

학익1동
행정복지센터 2층

관람 시간

11월 11일(화) 14시-17시 * 2시 전시 오픈

11월 13일(목) 10시-1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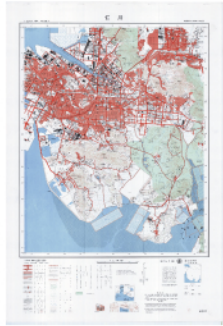
11월 17일(월) 10시-19시30분 (야간운영)

11월 12일(수) 10시-19시30분 (야간운영)

11월 14일(금) 10시-17시

11월 18일(화) 10시-14시

「도시의 전경 - 학익·용현의 시간」



인천 지도, 1987년 발행
국토지리연구원

① 땅이 바뀌고, 풍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다
지도는 도시의 기억을 담은 또 하나의 기록입니다.
바다와 염전이 사라지고 길과 마을이 생기며,
그 위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새로운 삶의 무늬를 그렸습니다.

② 공업지대의 경계에서 따뜻한 삶의 터전으로
1950년대 매립된 염전 위에 공장이 세워지고,
1970~80년대 인천 산업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공장 터 위로 아파트와 공원이 들어서며,
산업의 땅은 다시 사람들의 삶터가 되었습니다.



진)동양화학 부지 전경
2025년, 오인영



진)동양화학 부지 전경
2025년, 오인영



동양제철화학 근무 당시
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
1960년대, 손경임



흥한방적 동료들과
1950-60년대, 노옥희



아들의 학익국민학교 입학
최차연

⑤ 공장과 동네의 따뜻한 이음

공장과 집은 한 달음 거리,
기계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이 뒤섞이던 시간.
작은 가게와 사택의 골목마다
산업과 일상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⑥ 지도 위의 선으로 남다

도시의 비우고 채우며 끊임없이 변해왔습니다.
한때 바다와 염전이던 땅은 공장지대가 되었고,
다시 주거와 문화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도 위의 선과 이름들은 단순한 표시가 아니라,
이곳을 살아온 사람들의 기억이자 시간의 흔적입니다.

⑦ 도시의 기억, 삶의 자리

운동회, 가족사진, 골목의 풍경—
도시는 산업의 현장이자
누군가의 추억이 깃든 삶의 자리였습니다.
사진 속 얼굴들이 말합니다.
“도시는 결국,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⑧ 손때 묻은 사물이 말하는 시간

한 장의 사진이 순간을 담는다면,
하나의 물건은 오랜 시간을 품습니다.
그 사물들은 도시의 변화를 견디며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⑨ 기억, 도시의 이야기가 되다

도시는 사람의 삶으로 채워집니다.
하루의 노동과 저녁의 불빛, 골목의 웃음이 모여
도시의 시간을 이루고, 그 기억이 풍경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
이 도시의 또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⑩ 지도 위의 점 하나, 당신의 기억이 되다

오래된 사진 한 장, 골목의 웃음소리, 가족의 식탁.
그 기억의 조각들이 모여 도시의 새로운 지도를 그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이 도시의 또 다른 층위가 됩니다.

「산업의 기억, 사람의 이야기」

③ 어, 우리 동네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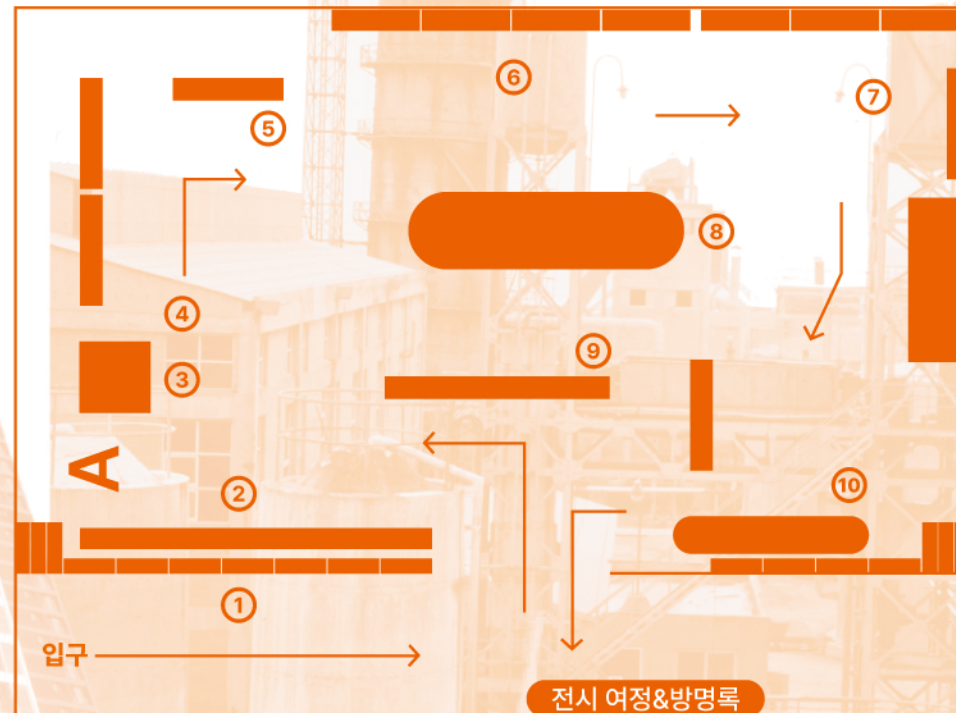
공장 골목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이 전국으로,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텔레비전 속 광고에 등장한 그 물건들은
도시의 성장과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공업의 시간은 어느새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흥한방적에서 아버지와 동료들
1960년대, 한재희

④ 골목 아래, 희망의 터전을 마련하다

공장의 연기와 작업복의 땀방울 속에서
사람들은 가족의 내일을 일구었습니다.
기계의 굉음 속에서도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우정과 노동의 기억으로 도시를 지탱했습니다.



공장과 도시, 그 기억으로의 초대

미추홀구 학익동과 용현동 일대는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
아니 '염전벽해(鹽田碧海)'라 할 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 바닷물이 드나들던 갯벌과 소금 꽃이 피던 그 자리에
크고 작은 공장들이 들어섰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공장 주변에 집들이 들어서며 새로운 동네가 생겼습니다.
시간은 그 위에 또 다른 풍경을 그렸습니다.
산업이 재편되며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기계의 굉음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굴뚝이 사라진 자리에는 아파트와 공원이 들어섰고,
쇠와 기름의 냄새 대신 바람에 실린 나무 향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전시는 그런 변화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들의 흔적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참여한 사람들

전시 디렉터 모모하시니의 만물작업
자문·글 유동현 전)인천시립박물관장
사진촬영·제공 오인영 미추홀사진인연합회 회장
사진제공 2025 옛 사진 공모전 참여자

옛 사진 기증 문의
032)866-3994
nghaksan@naver.com

미추홀시민아카이브
미추홀구의 시민의 삶이 담긴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

